

기획논문

저소득층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강사

(ORCID: <http://orcid.org/0000-0002-5055-9502>)

투고일: 2020.02.14. / 심사완료일: 2020.03.03. / 게재확정일: 2020.03.07.

요약

본 연구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년 조사에 응답한 중학생 2080명 중에서 저소득층(연소득 2400만 원이하)에 해당하는 30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매개영향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양육태도 중 긍정양육태도가 다른 양육태도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생활적응과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 및 방임학대와 부정양육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했다. 셋째, 부모양육태도 중 긍정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부분매개효과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및 가족개입적인 사회복지지원 프로그램—이 시급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빈곤,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I. 서론

학교는 가정에서 벗어나 학업수행, 친구 및 선생님 등의 학교구성원과의 인간관계 등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장소이다. 즉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개인적 인격발달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학습한다는 의미이다(노미화·허미정·최연실, 2015). 그리고 청소년과 환경과의 관계를 고찰해보면,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고 존재하는 환경은 학교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형태의 직업학교, 대안학교에서 머무르고 그들의 시절을 보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들에게 주요한 과제이다(박혜진·김형태·이수천, 2018).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적응은 주의해야 할 주제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1998년 IMF 이후 계층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가족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사교육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학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학업은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학교생활의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은 학교생활적응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김영희, 2002).

이런 관점에서 취약한 빈곤 이동과 청소년에 대한 학교생활부적응문제가 연구의 주제들로 자주 논의된다(황매향, 2016). 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브룩스건과 던컨(Brooks-Gunn & Duncan, 1997)은 빈곤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인지 및 정서 및 신체적인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걸 밝혔다. 더 나아가 빈곤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 및 비행, 병리적 행동까지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ttin-Pearson et al., 2000; Evans, 2004). 선행연구의 내용들은 빈곤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전반적인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학교생활부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

관련 연구들은 빈곤이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 등 위험요인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부모는 장시간 노동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자녀와 상호작용할 시간이 없어 그들은 미디어에 장시간 노출되어 인지발달 저해를 겪는다. 동시에 면대면으로 부모와 커뮤니케이션 할 시간부족으로 자녀들은 언어발달을 겪게 될 수 있다(Evans, 2004). 하지만 모든 저소득층 청소년이 학교부적응 등 부정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연구들은 이 부분에 집중해 해답을 얻으려 했고, 학교부적응에 대한 완충적 효과가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완충효과로 공통적인 것은 '사회적 관계'였다(황매향, 2016). 특히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해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가 부모와 지식 간

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이유에 대해 데이먼(Damon, 1997)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청소년기 자녀는 이때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가장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취해야 하는 행동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권은경(2008)에 따르면 기존 대가족형태에서 핵가족형태로 현대의 가족체제는 바뀌어져서 과거 형제자매들 간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고 한다. 또한 불안정한 청소년시기에 부모의 지지적 태도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의 태도나 행동으로 발현된다. 이를 부모양육태도라 한다(남상인, 1983; 이숙, 1987).

이런 점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해 부모양육태도를 주요한 변수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적응을 하는데 있어 부정적 양육태도가 위협요인으로 작용을 하고(Evans, 2004),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교부적응에 대한 완충적 사회관계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빈곤층의 부모가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임신아, 2013),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적으로 학교 적응능력이나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빈곤이 초래하는 물리적환경보다 부모의 스트레스가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진 저소득층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적절한 양육태도를 형성하지 못한다(McLoyd, 1990).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선 부모양육태도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이 규정했다. 파곳(Fagot, 1974)은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온정적 돌봄으로 자녀들의 신체적, 인지적 성장 및 사회적 적응을 위해 부모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라 했다. 이숙(1987)은 양육자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보이는 태도로 정의했다. 남상인(1983)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라고 했다. 베르크(Berk, 2006)는 부모양육태도를 자녀양육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으로 보았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 및 성격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애틀워터(Atwater, 1992)는 부모양육태도의 핵심개념을 부모와 자녀

간의 애정과 가르침의 과정이라 규정했다. 슈이퍼(Schaefer, 1959)는 부모양육태도를 2개의 축으로 대별하여 일종의 모형을 제공했다. 첫 번째 축은 애정-적대, 두 번째 축은 자율-통제로 가설적인 원형모형으로 간주된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이화순, 2003; 이선애,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적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유지현, 장경문, 2007)는 연구도 있다. 임선아(2013)의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이고 긍정적인일 때 학교적응에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양육태도를 변수로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로 자아존중감이나 배려감, 자기조절, 자녀교육 참여 등을 주로 사용했다. 부모양육태도가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기보다 실제적으론 부모양육태도가 자녀나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해 진행해 보려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탄력성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적절히 적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설하면 개인을 구성하는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 환경은 사람에게 스트레스와 위협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학업과 인간관계 등의 과업이 주어지고, 발달단계상 환경변화에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자아의 특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노은수, 2010). 이런 융통적이고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인특성을 자아탄력성이라 한다. 이런 자아탄력성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스트레스 등의 위협요소로 변화되어도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성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의 개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Bolck & Bolck, 1980), 본 연구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하여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처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자아탄력성의 개념은 시대적으로 사회적 불안, 고용 불안정 및 가정붕괴 등 안정되지

못한 시대적 여건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시대에서 타인을 포함한 제반환경여건에 적응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피터슨과 한버그(Petersen & Hanburg, 1986)는 청소년기의 내·외적 변화의 급작성에 주목하면서 이 시기의 자이탄력성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텔레겐(Tellegen, 1985)은 자이탄력성이 개인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 및 경험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게 하는 효능에 주목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클로넨(Klohn, 1996)은 자이탄력성이 개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 주고 자존감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게 해 주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자이탄력성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을 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인지적 힘과 관련 있는 개념일 수 있다.

셋째, 자이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고찰할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김경수, 김화경, 2011). 왜냐면 학교생활적응은 학업을 비롯해 인간관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인이 되기 위한 무대이다. 청소년기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했던 상황에서 탈피하는 시기로 온전한 성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다(장휘숙, 2004). 따라서 청소년기에 확립된 자이탄력성은 성인기의 성격 및 정체성과 관련되어 중요하다.

이런 자이탄력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블록과 크레멘(Block & Kremen, 1996)은 자이탄력성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 인지적 자원으로 보았다. 즉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긴장과 충동을 억제 및 조절하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러터(Rutter, 1985)는 자이탄력성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대별하여 전자는 개인이 가진 감정역량으로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적응적 자원으로 후자는 내적·외적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 자이통제를 변화시키는 역동적 힘으로 보았다. 자이탄력성에 대해 청소년들의 어머니들은 청소년 자이탄력성의 특징으로 낙관성을, 가족탄력성의 특징으로 유대관계를, 지역탄력성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주요한 특징으로 인식했다(이금옥, 2008).

자이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자이탄력성이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들이 다수이다. 높은 자이탄력성을 지닌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교사를 포함한 학교구성원들에게 친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Garmezy, 1980). 자이탄력성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가족과 학교 친구를 포함한 타인들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효능감과 정체성에 대해 뚜렷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어렵고 도전

적인 과업에 대처할 역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Block & Kremen, 1996).

이와 비슷하게 앤소니(Anthony, 1987)는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역할수행능력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환경의 장애와 어려움을 이겨낸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과 사회적응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자아탄력성은 이런 관점에서 발달단계상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임선화명재신, 2016). 이승현(2009)에 따르면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기 자녀는 이 시기에 부모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율적 양육태도를 가졌다면 그 자녀는 자신의 자율적인 내적준거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반면 부모가 통제적 양육태도를 가졌다면 그 자녀는 타인의 기준을 자신에게 투영할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자신의 내적 규준이 약화된 존재로 될 가능성이 높다. 자아탄력성이 강한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결과를 보인다(구지은, 2000). 김경수와 김화경(2011)에 따르면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면 환경에 적응하는 역량이 강화되는 등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걸 밝혔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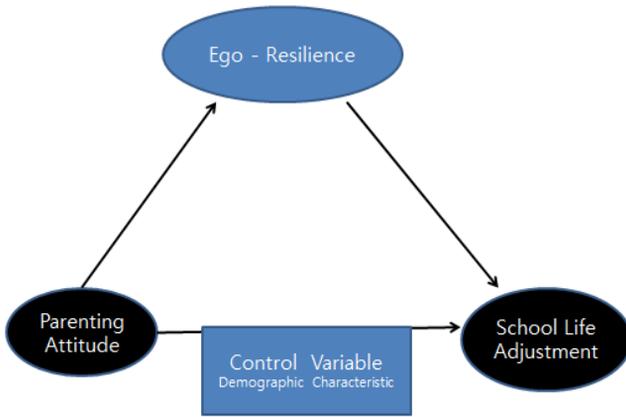
본 연구는 상기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 첫째, 저소득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둘째, 저소득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셋째,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넷째, 저소득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있을 것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를 저소득층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로 설정했고, 종속변수로 학교생활적응능력을 제시했다. 그리고 매개변수는 자아탄력성으로 설정했다. 성별, 이성친구 유무, 형제자매유무, 친부모 모두 있음, 편부모 있음, 계부모 및 없음을 통제변수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든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Research Model

- 가설 1. 저소득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저소득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저소득 가정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저소득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년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년(2013년) 조사에 응답한 중학교 1학년은 총 2080명중에서 중에서 저소득층(년 2400 만 원이하)에 해당하는 30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은 성별로 남자 51.9%, 여자 48.1%, 형제 있음 11.0%, 없음 89.0%, 이성친구는 있음 23.1%, 없음이 76.9%로 구성되었다. 부모구성은 친부모 모두 있음 49.7%, 편부모 45.5%이며 계부모 및 없음 4.8%로 나타났다.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
Gender	Male	160	51.9	Parents	Parents	153	49.7
	Female	148	48.1		Single parent	140	45.5
Siblings	Have	34	11.0		Step-parent	2	.6
	None	274	89.0		None	13	4.2
Friend of the opposite sex	Have	71	23.1				
	None	237	76.9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조사 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로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문항들을 참조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한 조사표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 등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독립변인: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허묘연(1999)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항목 21문항과 허묘연(1999), 김세원(2003)의 아동 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조사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하위변인은 감독 3문항, 애정 3문항, 합

리적 설명 4문항, 비일관성 3문항, 과잉기대 4문항, 과잉간섭 4문항, 방임 4문항, 학대 4문항으로 등 총 29문항의 신뢰도는 .876으로 신뢰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매개변인: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블록과 크리먼(Block & Kreman, 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수정·보완한 유성경과 심혜원(2002)의 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3년에 조사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이를 양지원(2015)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효과성에 관한 해결 중심적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사용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 3 문항, 호기심 4문항, 낙관성 3문항, 활력성 4문항 4개 요인으로 총 14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신뢰도 계수는 .88으로 신뢰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종속변인: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은 문선모(1977), 이상필(1990)의 척도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에서 학교행사 관련문항을 제외 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3)에서 사용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규미와 김명식(2008)의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학습활동, 학교 규칙, 교사관계, 교우관계의 4개 하위영역과 각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신뢰도계수는 .94로 신뢰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프로그램은 통계프로그램 SPSS 22.0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신뢰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분석을 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의 특성은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영향 분석은 Sobel 검정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각 변수의 기술통계

저소득층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전에 각 변수들에 대한 분포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모양육태도는 4점에서 긍정 양육태도는 평균 2.866로 가장 높으며, 부정양육태도 2.745점, 방임학대 2.353으로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2.777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 2.8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수 모두 왜도가 .842에서 -.113 사이에 있으며, 첨도는 1.527보다 작게 나타나서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Low income class	Minimum	Maximum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1	4	2,866	0,475	-.113	.242
Negative parenting attitude	1	4	2,746	0,477	-.446	.953
Neglect·Abuse	1	4	2,353	0,387	.842	1,527
Ego-resilience	2	4	2,777	0,400	.225	.559
School life adjustment	1	4	2,898	0,378	.000	1,483

2. 상관관계 분석

학교생활 적응과 긍정양육태도는 $r = .422$ 의 상관, 방임학대와 부정양육은 $r = -.506$ 의 상관을 보이며,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은 $r = .266$ 의 상관을 보이나 자아탄력성과 부정양육과 방임학대와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두 독립변수의 상관관계가 .8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6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Low income clas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Neglect-Abuse	Ego-resilience	School life adjustment
Low income clas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1				
	Negative parenting attitude	.126*	1			
	Neglect-Abuse	.222**	-.506**	1		
	Ego-resilience	.230**	-.015	.097	1	
	School life adjustment	.422**	.116*	.113*	.266**	1

* $p < .05$, ** $p < .01$

3. 매개효과 분석

저소득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배런과 케니(Baron & Kenny, 1986)가 만든 분석방법 모형에 맞춰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고 다음으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끝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하여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과정 보다 효과가 낮고 유의미하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양육태도($\beta=.233$)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양육태도와 방임학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양육태도($\beta=.388$)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양육태도와 방임학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양육태도($\beta=.233$), 부정양육태도($\beta=.124$)와 자아탄력성($\beta=.194$)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긍정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에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부정양육태도 및 방임학대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₂ 값은 1 단계에서 10.2%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2단계에서는 20.4%, 3단계에서는 23%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F값을 단계별로 보았을 때, 회귀선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IF) 값을 보았을 때, 통제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모두 10 이하의 값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and Ego-Resilience on School Life Adjustment

Variable		1 Step (Mediate variable)		2 Step (Dependent variable)		3 Step (Dependent variable)		VIF
		β	P	β	P	β	P	
Control variable	Gender	.045	.420	.068	.196	.060	.251	1,048
	Friend of the opposite sex	.118*	.033	.006	.903	-.016	.748	1,022
	Siblings	.065	.243	-.092	.082	-.105*	.044	1,041
	Step-parent	-.149**	.008	-.031	.549	-.002	.962	1,047
	Single parent	-.052	.358	.025	.643	.035	.506	1,079
	No parents	-.971	.213	.043	.428	.056	.286	1,087
Independent Variabl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233***	.000	.388***	.000	.343***	.000	1,213
	Negative parenting attitude	.033	.624	-.118	.060	-.124*	.044	1,471
	Neglect-Abuse	.017	.808	.079	.219	.076	.229	1,538
Mediate Variable					.194***	.000	1,114	
Statistic	R2	.102		.204		.230		
	F	3,769***		8,510***		9,284***		

* $p < .05$, ** $p < .01$, *** $p < .001$

이런 매개효과에 대하여 Sobel test 검증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Sobel Test for Mediating Effects

Path of variable	Mediating effect	Sobel t	P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School life adjustment	.045	2,379	.032
Negative parenting attitude ⇒ School life adjustment	None	—	—
Neglect·Abuse ⇒ School life adjustment	None	—	—

매개효과 검증은 Sobel test 한 결과 긍정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beta=.045$)을 매개로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의 효과분해는 저소득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효과분해 분석은 Sobel test를 이용하여 검증했으며, 먼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양육은 자아탄력성에 직접효과($\beta=.233$)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접효과($\beta=.194$)이며, 긍정양육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343$) 및 간접효과($\beta=.04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총 효과($\beta=.388$)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부정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는 직접효과($\beta=-.124$)는 나타났으나,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 Effect Decomposition

Path of variable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Ego-resilience	.233	.233	—
Ego-resilience ⇒ School life adjustment	.194	.194	—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Ego-resilience ⇒ School life adjustment	.388	.343	.045
Negative parenting attitude ⇒ Ego-resilience	None	None	—
Negative parenting attitude ⇒ Ego-resilience ⇒ School life adjustment	None	None	—
Neglect·Abuse ⇒ Ego-resilience	None	None	—
Neglect·Abuse ⇒ Ego-resilience ⇒ School life adjustment	None	None	—

4.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첫째, [가설 1]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 긍정양육($\beta=.388$)태도는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이 높아지며, 부정양육태도($\beta=-.124$)는 낮아졌으며 학교생활 적응력이 낮아지며, 방임학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둘째, [가설 2]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이 자아탄력성이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 긍정양육태도($\beta=.233$)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양육태도와 방임학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2]를 부분 채택되었다.

셋째, [가설 3]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이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결과 자아탄력성($\beta=.194$)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3]이 채택되었다.

넷째, [가설 4]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있을 것이다’의 검증결과 긍정양육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beta=.045$)는 나타났다. 부정양육태도와 방임학대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가설 4]가 부분채택 되었다.

<Table 7> Hypothesis Test Results

Hypothesis	Hypothesis content	Adoption of hypothesis
Hypothesis 1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life adjustment	Partial adoption
Hypothesis 2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ego-resilience	Partial adoption
Hypothesis 3	The effect of ego-resilience on school life adjustment	Adoption
Hypothesis 4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life adjustment through mediation of ego-resilience	Partial adoption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 중 긍정양육태도가 다른 양육태도에 비해 평균이 2.866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2.777, 학교생활적응은 평균 2.898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수들의 상관관계의 결과는 학교생활적응과 긍정양육태도가($r=.422$), 방임학대와 부정양육($r=-.506$)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과 부정양육 및 방임학대와는 상관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셋째, 저소득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양육태도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양육태도와 방임학대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한편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긍정양육태도만 매개효과를 보였고 부정양육태도 및 방임학대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려 한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 중 긍정양육태도가 학교생활에 정적 영향을 미친것은 기존 연구(임선아, 2013; 박혜진 외, 2018; 노미화 외, 2015; 박순주·심혜원, 2012)와 맥을 같이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 실질적 제언을 하자면, 사회복지관이나 관련기관과 단체에서 저소득층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학교나 기관들이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가차원에서 저소득층부모들이 청소년자녀들과 긍정적 의사소통을 비롯해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에서 부모교육 및 가족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모집과 참여의 어려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중심교육보다는 집단 프로그램이나 집단상담

등을 통해 부모역할에 대해 위로, 지지, 격려, 강화하는 시간으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층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들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가정의 부모가 비저소득층 가정의 부모에 비해 노동이나 경제 및 제도적인 부분에서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부모는 스트레스를 청소년자녀에게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제도적 문제, 분배적 문제로 귀결된다. 정책가를 비롯해 실천현장의 실천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중요성을 상기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포용도가 높은 사회적 질을 고려한 사회로의 합의가 필요하다(이소영, 2017).

셋째,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기존 연구(박순주·심혜원, 2012)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환경에 대한 유연한 개인의 태도로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이를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맞는 학교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연계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실무자들은 개입해야 한다. 가령 정규과정 외의 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경험을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인근의 지역이동센터와 학교가 연계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돌봄서비스 및 개인별정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방안이 되리라 본다(Won et al., 2019).

한편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년 데이터를 근간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후속연구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양육태도가 의미 있는 변수로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번 부모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정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부모 당사자의 양육태도를 점검하여 부모와 자녀 간 격차를 살펴보고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볼 필요성도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검증한 매개효과가 시간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종단연구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구자은(2000). **자이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Gu Ja-eun(2000). *Jaatanlyeogseong, geungjeongjeog jeongseo mit sahoejeog jijji wa cheongsonyeon ui gajeongsae nghwal jeogeung mit haggjyosaenghwal jeogeung gwau gwangye*.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 권은경(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이탄력성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Kwon Eun-kyung (2008). *Adongi jigaghan bumo ui yangyugtaedo wa jaatanlyeogseong gwau gwangye*. Ma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김경수·김화경(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교생의 자이존중감 및 자이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 143-170. [Kim Kyeong-su & Kim Hwa-kyoung (2011). A Study on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2), 143-170.]
- 김세원(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Kim Se-won(2003). *Sahoejeog jijji ga hagdaegyongheom adong ui jeogeung e michineun yeonghyang*.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김영희 (2002).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1), 1-14. [Kim Young-hee (2002). A Study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in Poor Families: with Mediating Role of Maternal Involvement.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3(1), 1-14.]
- 남상인(1983).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양식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Nam Sang-in (1983). *Bumo ui yangyugtaedo wa janyeo ui injiyangsig gwau gwangye*. Ma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노미화·허미정·최연실(2015).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119-134. [Noh Mi-wha, Heo Mi-jeong & Choi Youn-shil (2015).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and Car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2), 119-134.]
- 노은수(2010). **초등학생의 자이탄력성 및 통제소재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No Eun-soo (2010). *Chodeunghagsaeng ui jaatanlyeogseong mit tongjesojae wa haggjyosaenghwal jeogeung ganui gwangye*. Ma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문선모(1977).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 연구**, 4, 19-28. [Moon Sun-mo(1977). Hagsaeng ui baegyongjeog teugseong gwa haggjojeogeung e gwanhan yeongu. *Gyeongsang Nationa University's Students Guidance Studies*, 4, 19-28.]
-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이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Min Byung-soo (1991). *Haggjo saenghwal jeogeung gwa jaagaenyeom i hageobseongjeog e michineun yeonghyang*.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 박순주·심혜원(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자이탄력성, 자기조절학습이 빈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2), 113-135. [Park Soon-ju & Shim Hae-won (2012). The Effect of Positive

- Parental Attitude, Ego-resiliency, Self-regulated Learning Structurally on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2), 113-135.]
- 박혜잔·김형태·이수천(2018).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복지**, 20(3), 137-160. [Park Hye-jin, Kim Hyoung-tae & Yi Soo-cheon (2018).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School Adapta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Parent Attachment, *Health and Welfare*, 20(3), 137-160.]
- 양지원(2015). **학교부작용 청소년을 위한 효과성에 관한 해결 중심적 집단미술 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Yang Ji-won (2015). *Haggyo bujeogeung cheongsoneon eul wihan hyogwaseong e gwanhan haegyeol jungsinjeog jibdannimul chilyo program gaebal yeongu*, Ph.D.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 유성경·심혜원(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Yu Seong-gyeong & Sim Hye-won (2002). Jeogeung yuyeonhan cheongsoneondeul ui simljeog bohoyoso tamsaeg. *Educational Psychology Studies*, 16(4), 189-206.]
- 유지현·장경문(200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학업적 자율감, 학업성적과의 관계. **학습장애연구**, 4(1), 117-133. [Yoo Ji-hyun & Jang Kyung-moon (2007). Junghagsaeng i jigaghan bumoyang yugyeong taedo, hageobjeog jayulgam, hageobseongjeog gwauwi gwangye. *Learning Disabilities Studies*, 4(1), 117-133.]
- 이규미·김명식(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Lee Kyu-mi & Kim Myung-sik (2008). Junghagsaeng haggyojeogeung cheogdo ui hwaginjeog yoinbunseog eul tonghan tadanghwa yeongu.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chool*, 5(1), 27-40.]
- 이금옥(2008). **청소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 탄력성에 대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식 연구**.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Lee Geum-ok (2008). *Cheongsoneon tanlyeogseong gajog tanlyeogseong jiyegsahoe tanlyeogseong e daehan cheongsoneongi janyeo leul dun eomeoni ui insig yeongu*, Mater's Thesis, University of Ulsan.]
- 이상필(1990). **학교생활 적응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분석**.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Lee Sang-pil (1990). *Haggyo saenghwal jeogeung sujun e ttaleun hageob seongjeog mit haengdong teugseong ui chai bunseog*.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 이선애(2009). 가족자원 및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1), 5-24. [Lee Sun-ae (2009). Gajogjawan mit bumoyang yugtaedo ga cheongsoneon hageob seongjeog e michineun yeonghyang.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1), 5-24.]
- 이소영(2017). 사회적약자의 보호와 사회의 질: 발달장애인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사회적질연구**, 1(2), 1-16. [Lee So-young (2017). Protection of Minority Group and Social Quality: Focusing on Crime Victim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1(2), 1-16.]
- 이숙(1988). **부모의 훈육과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동기와의 관계 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Lee Sook (1988). *Bumo ui hunyug gwa cheongsoneon ui chinsahoejeog haengdongdonggi wauwi gwangye yeongu*, Ma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 이승현(2009). **자이탄력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 석사학위

- 논문. [Lee Seung-hyun (2009). *Jaatanlyeogseong gwa bumou ui yangyugtaedo ga cheongsoneyeon ui seongchwi mogpyo jihyangseong e michineun yeonghyang*. Ma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이희순(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학업성적 차이 연구. **아동교육**, 12(2), 137-150. [Lee Hwa-soon (2003). Junghagsaeng i jigaghan bumou ui yangyugtaedo e ttaleun hageobseonggieog chai yeongu. *Children Education*, 12(2), 137-150.]
- 임선아 (2013). 민주적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존감, 학교적응에 미치는 구조모형 비교. **교육심리연구**, 27(1), 125-142. [Lim Sun-ah (2013). Investigating Low-and High-income Group Differences in Structural Model: Effects of Democratic Parenting Attitude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7(1), 125-142.]
- 임선화명재신 (2016).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2), 327-347. [Lim Sun-hee & Myung Jae-sin (2016).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that Perceive Adolescents Impact on Self-esteem : Mediated Effect of Ego-resil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2), 327-347.]
-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박영사. [Jang Hwi-sook(2004). *Cheongnyeon simlihaeg*. Bagyeongsa Publishing.]
- 허효연(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Heo Myo-yeon (1999). *Cheongsoneyeon i jigaghan bumou yangyug haengdong cheogdo gaebal yeongu*. Ph.D.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 황매향(2016).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을 돕는 대인관계 양상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7(6), 395-415. [Hwang Mae-hyang (2016). The Social Relationships Facilitating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6), 395-415.]
- Anthony, E. J. (1897). Children at high risk for psychosis growing up successfully. In E. J. Anthony and B. J. Cohler (Eds.), *The invulnerable child* (pp. 147-184). New York: Guilford Press.
- Atwater, C. M. (1992). Clinical education since Flexner or whatever became of William Osler? In B. Barzansky & N. Gevitz (Ed), *Beyond Flexner: medical educ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Greenwood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ttin-Pearson, S., et al. (2000). Predictors of early high school dropout: A test of five theor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3), 568-582.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Hillsdale, NJ: Erlbaum, 39-101.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rooks-Gunn, J. & Duncan, G. J.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55-71.

- Damon, W. (1997). *The Youth Charter: How Communities Can Work Together To Raise Standards for All Our Children*, New York: Free Press.
- Evans, G. W. (2004). The environment of childhood poverty. *American Psychologist*, 59(2), 77-92.
- Fagot, B. I. (1974). Sex differences in toddlers' behaviour and parental re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 554-558.
- Garnezy, N. (1980). Stressors in childhood. In N. Garnezy & M.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Won, Ji-young, et al. (2019). The Formation Process and Current Issues of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3(2), 19-30.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5), 1067-1079.
- Laura E. Berk. (2006). *Child Development* (9nd Ed). Illinois State University Press.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31-346.
- Petersen, A. C. & Hamburg, B. A. (1986). Adolescence: A developmental approach to problems and psychopathology. *Behavior Therapy*, 17(5), 480-499.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61.
- Schaefer, E. S. (1959). Development of a materi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83-104.
- Tellegen, A. (1985). *Structures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D. Master (Eds.),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 (pp. 681-706). Hillsdale, NJ: Erlbaum.

박범기

고려대학교 문과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서울 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아동청소년 상담복지사과정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 및 사회학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상사의 리더십 유형이 셀프리더십과 조직유행성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소잔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품질이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치매국가책임제도에 관한 소고: 도입과 쟁점”, “노인에 대한 혐오배제가 노인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 “The Formation Process and Current Issues of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이 있다.

E-mail: bki1013@hanmail.net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 Youth
from Low-Income Family on Their School Adjustment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Bum-ki Park

Professor, Lifelong Education Center, Seoul Social Welfare Graduat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young people from low-income families on their school adjustm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For this purpose, 308 out of 2,080 middle school students who had responded to the 4th year survey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were chosen, based on the national sampling. These 308 were from households with low income (less than 24 million won a year). The analytical method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ed impact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of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was higher than those of other parenting attitud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parenting attitudes and between negligence and abuse and fraudulent parenting. Third,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tudents' school life adjustment and it also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rough ego resilience. In addition, ego resilienc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tudents' school life adjust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self-resilience reinforcement program and family intervention social welfare program and policy for the youth from low-income households for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Key Words: Adolescents, Poverty, Parenting attitude, Ego-resilience, School life adjustment

